

지역 소식통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비지원 훈련생모집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김현진)에서 국비지원 취·창업과정 직업교육훈련생을 모집한다.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전문적인 직업능력을 개발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준비 중인 여성들을 위해 국비지원 취·창업과정 직업교육훈련생 60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직업교육훈련과정은 여성가족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사업으로 ▲생산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치매예방 두뇌 트레이너 양성과정 ▲업사이클링 디자이너 창업과정 ▲한식셰프 마스터 과정이다.

생산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과정은 현장실습을 통해 수료 후 바로 취업으로 연계 가능하다.

직업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사항은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http://www.wanjusaeil.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 사항은 전화(063-262-1780~6)로 안내 받을 수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보건소, 코로나19
관련 심리상담 지원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전국 및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통합심리자원을 하고자 심리안정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단락될 때까지 정서적 취약군(센터 등록회원, 일반격리자 등)에 대해 스트레스, 불안 관련 전문 심리상담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며, 1차적으로 센터 내 등록 회원에게 확진자 이동 경로 확인 및 예방수칙을 포함한 심리지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전화를 통한 심리상담을 진행하며, 선별 및 치료연계 등도 지원한다.

또한 2차적으로 일반시민들에게는 스트레스, 불안에 대해 전화상담으로 긴장을 완화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안내해주고 정도가 심할 시 사후관리 및 정신의료기관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중기 특별지원지역 재지정

김제 지평선산단, 입주 중소기업 우대혜택 다양 향후 5년간 법인세 감면 등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평선산업단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난 2010년과 2015년에 이어 재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산업집적도 및 생산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중 자치단체의 의지가 높은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세제·관료·자금 등에 대한 특례 지원을 통해 기업유치와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번 재지정을 통해 지평선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향후 5년간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세(또는 소득세)에 대해서도 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간(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정책자금 융자한도·병역지정업체 선정·기술개발(R&D) 등에 대한 우대 등의 지원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업경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기업유치 활동에 더욱 탄력을 받아 지평선산업단지 조기 분양완료 목표 달성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고시된 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이 오는 3월 12일 만료됨에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가 올해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되었다.

따라 그동안 김제시는 박준배 시장이 두로 지평선산업단지의 재지정 필요성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함과 동시에, 전라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부 및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등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특별지원지역 지정 심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이번 재지정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입주기업의 한 관계자는 "아직 기업이 정착해가는 단계에 있어 특별 지원지역 재지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기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었다"며, "향후 기업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동안 노력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특별지원지역 지정 이후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약 56개 기업이 국세와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았고, 30여건의 수의계약(제한경쟁입

찰)이 진행되는 등 기업경영안정화 및 투자여건 개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러한 특별지원지역 지정혜택은 김제시의 적극적 투자유치 노력과 더해져 2015년 지정 당시 8개 기업(고용인원 350여명)에 불과하던 입주기업 수가 현재 약 82개(약 2,500여명)로 늘어나고, 100억 원을 상회하는 기업별 평균매출액을 보이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지평선산업단지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기여하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특별지원지역 재지정을 통해 지평선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기업을 경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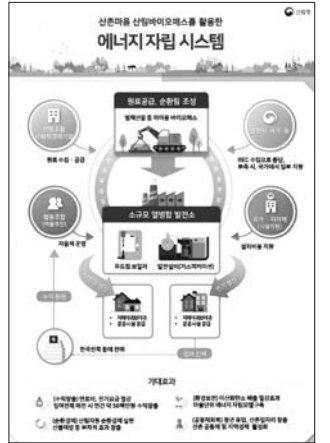
완주군, 산림청 주관 공모사업 선정... 산림부산물 이용

완주군은 지난 2일 산림청이 주관한 2020년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44억원(국비22억)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은 산림내 버려지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 연료생산 시설과 마을단위 열병합발전 및 중앙열공급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온실가스의 획기적인 감축과 산림부산물 활용 증대, 마을단위 발전수익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올해와 내년에 2개소씩 선정 2022년까지 전국에 총 4개소를 조성한다.

완주군의 경우 화산면 화평리 면소재지 4개마을을 대상으로 공모신청 하였으며 연간 54만kW의 발전설비와 시간당 45만kcal 온수생산설비 계획으로 연간 65백만원의 전기판매 수익과 저가의 환경친화적 온수공급 및 지역일자리, 산림바이오매스 테마관광 등 지역부가가치 창출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완주군 부창원 산림복지과장은 이



번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으로 완주 산림바이오매스 메카 도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으며 고산자연휴양림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에 이어 화산면 분산형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으로 로컬에너지1번지 완주군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수급자·차상위자 자산형성 지원... 이달 18일 까지 방문 신청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신규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3년내 탈수급을 전제로 본인이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목돈으로 돌려주는 사업으로 가입대상에 따라 5종류로 구분된다.

희망키움통장 I 은 일하고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를 대상으로 본인이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고 가구소득에 따라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지원하여 4인 가구 기준 최대 2,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 II 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가구 중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가 계속 근로활동을 하면서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면 총 720만원을 받게 된다.

내일키움통장은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매월 5만원 또

는 10만원을 저축하고 사업단에 따라 내일키움장려금을 추가적립 지원하여 탈수급 또는 취·창업시 자립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만15세~39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저축액 없이 소득에 따라 매월 근로소득 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여 최대 2,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4.1일부터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하고 가입기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희망키움교육 이수 조건으로 총 1천4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가입자 2차 모집기간은 이번달 18일까지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이후 가입 신청은 11월까지 매월 초 접수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올해 '공익형 직불제' 예산, 작년 대비 1조원 증가

면적 관계없이 연 120만원 지급

김제시, "제도 정착 적극 홍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쌀·밭 직불제에서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개편된 공익형직불제는 기존 쌀소득보전직불(고정, 변동),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제를 선택형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정부에서는 공익형 직불제 예산으로 '19년 예산(1.4조)보다 70% 인상된 2.4조원을 '20년 예산으로 확보,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식품안전, 환경보호,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익형 직불제는 3단계(진흥 지역은 ·밭/비진흥지역은 ·비진흥지역)로 차등화 하여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선택형 공익직불제인 친환경·경관보전·밭농업·논이모작(논활용) 직불제는 종전대로 지급받는데, 기본형 공익직불제인 소규모농가·면적직불금과 병행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이다.

농지 경작 규모에 따라 기준면적 구간을 2ha이하/2ha초과~6ha이하/6ha초과~30ha이하 3단계로 구별하여 적용되며,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단가는 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할 예정이다.

특히 기본형공익직불제의 소규모농가 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

가에 대해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변경 전의 쌀·밭직불제는 농지 추가, 삭제 등의 농업경영정보변경과 직불제 신청을 동시에 진행했던 통합접수 방식에서 2월~4월 17일(코로나 19에 따른 연장)까지 농업경영정보변경 후 4월 말부터 5월말까지 공익형직불제 신청하는 분리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익형 직불제 추진일정은 ▲경영정보변경등록신청서 배포(2월말), ▲경영정보신청서 접수(4월 17일까지) ▲직불신청서 배포 및 접수(4~5월말)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사업 개편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농가에게 공익형직불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